

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시행

국토교통부 항공기술과 (☎ 044-201-4285)

▶ 항공기 이착륙 시,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*의 사용을 금지하던 것을 2014년부터 대부분의 전자기기를 이착륙 중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.

- 다만, 휴대폰은“비행기 모드”상태**에서 사용 가능하며, 노트북과 같이 부피가 큰 전자기기는 항공기가 지상 이동 또는 이착륙 중일 때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반이나 좌석 아래에 보관하여야 합니다.

* 휴대용 전자기기 : 스마트폰, 태블릿, 전자책, MP3 플레이어 등

** 비행기 모드 : 통화나 메시지 전송이 불가하나 그 외 기능은 사용가능

- 지금까지 항공기가 이착륙 중인 고도 1만 피트(약 3천m) 이하일 때는 휴대용 전자기기에서 발산되는 전자파가 항공기 전자장비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려하여 사용을 제한하여 왔으나,
 - 휴대용 전자기기의 전자파 간섭이 현대 항공기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, 미 연방항공청(FAA)은 항공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.
 - 우리 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여 국적항공기 내에서도 전자기기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전자파 안전성 평가 등의 이행지침을 2013년말까지 마련하여 항공사에 제공할 예정입니다.
- 항공사는 제공된 이행지침에 따라 보유 항공기에 대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고 운항규정 등을 인가받게 되면, 탑승객은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

☞ (참고)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> 국토교통뉴스>보도자료 >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

<항공기 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 내용>

- ▶ 추진배경 : 미국 연방항공청이 항공기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 시행함에 따라 우리 부도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
- ▶ 주요내용
 - ① 항공기 기내에서 휴대용 전자기기를 기존의 고도 1만 피트 이상에서만 사용가능했던 것을 모든 비행단계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
- ▶ 시행일 : 2014.1.